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2호 [루게 제24410호] 주제 102(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3168군부대, 제695군부대 군인들의 격술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3168군부대, 제695군부대 군인들의 격술훈련을 보시였다.

최룡해 동지, 김원홍 동지, 김경욱 동지, 황병서 동지가 훈련을 함께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훈련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군인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대회참가자들은 자기들과 함께 훈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격정

을 누르지 못하면서 폭풍같은 안고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키워온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며 군인들은 어렵고 복잡한 전투조법들과 동작들을 정확하고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훈련장은 전투적기백으로 불도가 터번처럼 끓어번졌다.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군인들이 번개같이 몸을 날리며 《적》들을 쓸어버리고 무서운 타격력을 보여줄 때마다 관람자들은 환호를 울리며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당의 훈련제일주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훈련으로 밤을 밝히고 새날을 맞으며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자라난 군인들의 멸적의 기상이 나래치는 훈련은 관람자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군인들은 훈련을 통하여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탁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화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위대한 당기가 휘날리는 사회주의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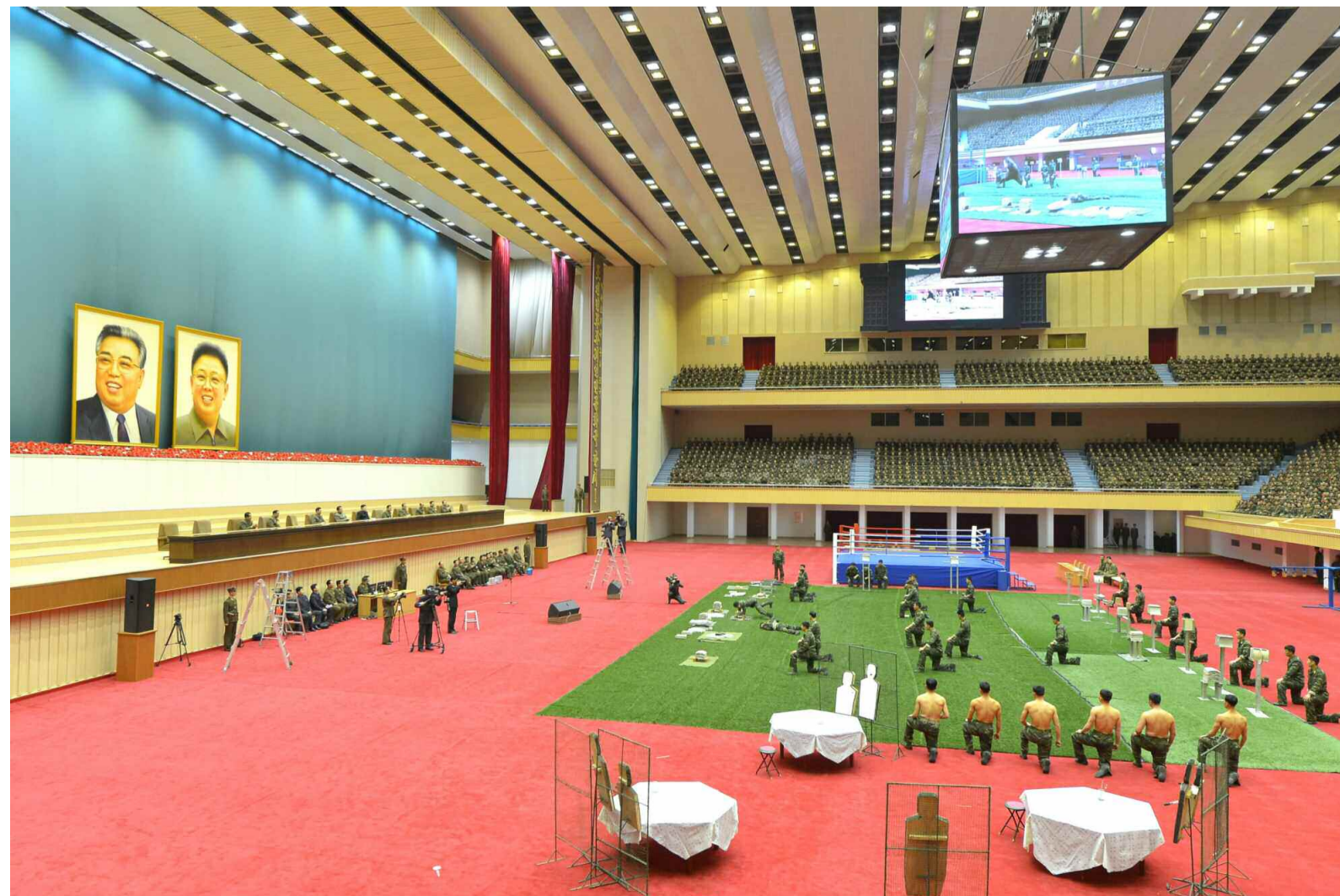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해주시는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은 동지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억세여지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을 보시고 군인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할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인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 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최룡해동지, 김원홍동지, 김경옥동지, 황병서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의리를 지니고 찬바람, 눈비를 다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대회참사수해갈 총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혁명적신념과 백옥같은 량심, 참된 맛으며 성스러운 복부의 길에 청춘도 참가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전체 초병들은 우리 당의 귀중한 혁명동지, 혁명전우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믿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선군혁명의 길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 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걸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참가자들은 자기들을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최고사령관동지와 뜻과 정, 생사운명을 함께하며 한몸그대로 충이 되고 목탄이 되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바쳐

본시정지보도반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도하는 불멸의 대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주제100년대진군길에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백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최후의 천출위업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에 넘쳐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 100년대진군을 령도하시면서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 발표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최후승리의 표대를 마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2년간 중요대회에서 하신 연설들과 역사적서한, 논문들을 비롯한 위대한 명저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중대한 력사적전환의 시기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 한 해답을 주는 불멸의 대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결어온 력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어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넘친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실때 대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논문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에는 주체조선의 100년사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과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력사이라는 사상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때 대한 사상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한 길로 나아가야 할 열의에 넘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더 백배해주었다.

은 나라가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몸부림치던 괴논물의 12월에 발표하신 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은 천주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결어온 력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어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넘친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주체의 100일을 고결한 총정과 유순관철로 수놓아온 전체 인민군장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실때 대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리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이 새롭게 훌륭히 꾸러지게 되었다.

사회과학원창립 60돐과 올해의 선군절을 맞으며 로작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발표하시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실현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과 혁명대오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일일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천명하시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대진군령을 울려 1월 조선로동당 제4차 세

비서대회를 지도하시면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은 전당의 세로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당의 전진적위업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도 하는 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와 결론에서 제시하신 전략적로선은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본질적내용과 생활력, 그 구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히시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삶과 투쟁의 교과서, 사상정신적 양식을 안겨주시었다.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공화국창건 65돐, 전승 60돐이 되는 올해의 투쟁구호와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방향을 천명하시였으며 3월 전국공업대회에서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릴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진하는 선군혁명대오의 필승의 기상을 담아 <마시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고조적진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하시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사한 <당의 주체적격축사명령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시어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대건설 지령을 마련해주시었다.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연석회의 50돐을 맞으며 발표하신 로작 <역사적인 창조력서회의정신을 구현하여 모든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자>는 군을 강화하고 군의 역할을 높이는 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힘있게 불리일으키는 고무적지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시대를 디디고 올라서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승리를 만방에 떨쳐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조국망의 면모를 일신시키시려는

천출위업의 애국적지가 백학치는 로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때 대하여>와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며 산업미술을 발전시킬때 대한 사상이 밝혀진 로작들을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며 새로운 위훈창조에 한걸음이 펼쳐나갔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산혁명학원 창립 65돐에 즈음하여 학원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서한과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 연합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에는 혁명의 계승자들, 세 세대가 미래의 주인공들로 언제나 준비할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어그러졌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들은 당과 혁명대오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일일단결의 위력으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데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다.

천만군민은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최후승리를 위한 리정표를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따라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리상과 념원인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올려올려주시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범적인 강연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강성국가건설에 힘있게 불리일으키는데 기여한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었다.

남포공업전문학교 교장 림혜순은 수십년간 강연강사로 활동하면서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강연을 참신하고 설득력있게 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조로 이끌었다.

창조금선전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해주제2사범대학

강좌장 백순일은 수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강연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강원도도매상업관리처 과장 장덕호는 강연강사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중요대상선진성장과 협동농장에서 화신식강연선진활동을 적극 벌려 대중의 찬사를 받고있다.

평성사범대학 강좌장 안재명, 사리원시작매점 본점 점장 전명화는 오랜 기간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강연활동을 활발히 벌려 <우리 강연강사>로 불리우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김정일애국

주의교양자료, 상식자료 등을 가지고 강연을 잘하고있는 삼수혁명사적지관리소 소장 리화, 청진시 포항구역인민위원회 부장 안성일도 대중이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말씀에 받아안은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은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강성국가건설에 불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더 잘하려는 열의에 넘쳐있다.

본시기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하는 혁명사적표식비가 2, 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홍남구두공장, 장자산종합식료공장에 건립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동지께서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 세워졌다.

혁명사적표식비에 는 주제 100(2011)년 12월 2, 8비날론련합기업소 금수침전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명을 결사 관철할 일념으로 인민군군인들이 단 6일동안에 수만㎡의 감람을 파내고 보수정리한 이곳을 잘 관리하여 온이 나게 할때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사적내용이 새겨져있다.

홍남구두공장에 건립된 혁명사적표식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100(2011)년 12월 2, 8비날론련합기업소 금수침전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업적을 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99(2010)년 7월 공장을 찾으신 생생공정을 현대화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식료품을 많이 생산 공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내용을 담은 혁명사적표식비가 장자산종합식료공장에 건립되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조선중앙통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 여러 단위에 건립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명을 결사 관철할 일념으로 인민군군인들이 단 6일동안에 수만㎡의 감람을 파내고 보수정리한 이곳을 잘 관리하여 온이 나게 할때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사적내용이 새겨져있다.

홍남구두공장에 건립된 혁명사적표식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100(2011)년 12월 2, 8비날론련합기업소 금수침전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업적을 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99(2010)년 7월 공장을 찾으신 생생공정을 현대화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식료품을 많이 생산 공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내용을 담은 혁명사적표식비가 장자산종합식료공장에 건립되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조선중앙통신】

길이 전해갈 열의드높이 해당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혁명사적표식비를 훌륭히 건립하는데 총정을 바치였다.

여러 단위에 혁명사적표식비를 건립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빛내게 실현해나갈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표시로 된다.

혁명사적표식비제작이 해당 단위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최고사령관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툃에 즈음하여



↑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 101(2012)년 8월
←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 호 2호기의 발사과정을 관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 101(2012)년 12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354군부대 비행사들을 만나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 101(2012)년 1월



조선인민군 해군 제 158군부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 101(2012)년 2월



조선인민군 제4302군부대관하 감나무중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 101(2012)년 8월



선군의 산악 오성산의 초소들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 102(2013)년 6월



조선인민군 제 405군부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 102(2013)년 5월



조선인민군 제1973군부대관하 2대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 102(2013)년 3월



인민군대에서 건설하고있는 대성산종합병원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 102(2013)년 1월



인민군대에서 제작한 문화기재들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 102(2013)년 3월



조선인민군 제 323군부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 102(2013)년 2월

정론 최고사령관과 전우

조선의 12월은 뜨겁다. 눈보라일고 추위가 사나와도 위대한 장군들이 대를 이어 내린 민족사적대행운을 누리는 행복으로 온 강산이 설레인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2월 30일은 12월 24일과 함께 우리 혁명사에 대경사의 날로 빛나고 있다.

세월의 년륜은 어느덧 두들기를 웃고 천백배로 풍친 우리의 선군대오는 승리를 떨치며 노도와 같이 진군해왔다.

이 거대한 대하가 시대와 역사에 새긴 불멸할 이름은 무엇인가. 최고사령관과 전우!

우리는 이 글자놀음은 부름으로 걸어온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실현될 휘황찬란한 미래를 내다본다.

천만의 전사들과 인민들에게 제일하고 싶으신 자신의 말씀도 이 한마디에 담으시었다.

3년전엔 떠나간 조영룡동지의 서거 일흔을 잊지 않고서 인민무력부혁명사적편의 《최고사령관과 전우들》을 찾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가슴을 새겨 두드린다.

총대전우들과 어깨를 걸고 사생결단의 전장을 누비시던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시며 한걸음, 선군의 품속전역을 전우들과 함께 헤쳐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시며 또 한걸음, 그렇게 한양, 또 한양을 지나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중은 얼마나 뜨거우셨으리라고.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은 수령은 전우를 찾고 전우들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의 진격로를 피로써 열어온 성스러운 위업이다.

결을 걸을 혈로써 헤치던 항일의 나날을 더듬어보라. 가말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격동기를 펼쳐보고 사회주의건설위업의 변혁기와 포성없는 전쟁의 준엄한 전구들을 뒤돌아보라.

조국이 커다란 시련을 헤칠 때, 가슴속 찬 승리의 포성을 울릴 때, 세상을 누베우는 기적을 창조할때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게는 언제나 미더운 총대전우들이 있었었다.

전우로부터 모든지 시작된다. 전우가 있거야 총대가 있고 전우가 있고야 붉은기도 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이는 우리의 모든 승리와 기적을 만들어온 거대한 생명체였다.

정녕 이 땅에서처럼 최고사령관과 전우들의 단결이 혁명을 추동하는 무한대의 힘으로, 영원한 승리의 보검으로 빛나는 이면 역사를 그 언덕이 있었었다.

위대한 전우들이 백두산장군들의 위대한 심장에 운명의 피를 흘리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준엄한 사지라도 함께 헤쳐며 백승을 펼쳐 온 조선혁명은 오늘의 선군길에서 다시금 이에 대한 힘있는 대답을 주고 있다.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 오며 수직성상 다져지고 추격된 백두산 동지에게 경애하는 원수님 헤쳐가시는 선군장정의 천만리길을 전면적으로 돌파하셨었다.

위대한 최고사령관이 강철의 전우부대를 만드셨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었기에 우리 군대는 백두산에 뿌리내린 동지들의 굳센 자기의 생명으로, 피출기로 간직하셨었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전우에 대한 우리의 추억은 진하고 진한 12월의 피눈물과 함께 온다. 정녕 보통의 피눈물이었는가. 위대한 장군님을 뚝박에 잃고 천만의 군대와 인민이 땅을 치며 울고, 그 피눈물은 가장 위대한 장군, 가장 위대한 전우를 잃은 피눈물이었다.

상상할수 없는 고통을 말없이 겪으시며, 가야 할 앞길을 내다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 모두 팔을 끼고 어깨걸고 이 준엄한 시련을 이겨냈시다!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위대한 전우를 잃으신 크나큰 마음의 공백에 천만의 군민을 세워주시는 하느같은 믿음이였다.

전우의 그 믿음으로 새해의 첫날 근위광부대의 장병들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걸고 새로운 주제 100만대의 진군포성을 울리셨었다.

전우들과 굳게 뭉친 그 모습으로 세계에 거연히 나서시었고 그 말없는 심장의 헤엄으로 천만리로 이어갈 동지들의 장정을 선언하시었다.

피눈물의 바다에서 어깨걸고 일어난 전우들을 찾아가신 길이였다.

그 한차례, 한차례의 현시시찰은 사랑하는 전우들과 피와 정을 잇는 걸음걸음이었다.

사람들이여,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보자.

최고사령관과 전우. 초소에서 맺은 인연을 말할 때 우리 병사들의 심장은 과연 무엇으로 고동졌고 그들은 눈물로 젖어 웃으며 목메어 말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 많은 날과 달들, 많은 사연과 순간들이 무거우는데 정녕 날이 눈물을 자아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E. C》의 성원들처럼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걸고 기념사진을 찍은 장병들을 천으로 헤아리라, 만으로 헤아리라.

초도와 판문점, 오성산과 갈마루 중대, 장제도와 무도, 월내도, 하늘과 땅, 바다초소에서 이르기까지 우리 원수님께서 다나간 선군의 지명들이 기념사진들에 다 새겨져있다.

바람처럼 함선의 갑판에서 행영들 속에 둘러싸이시어 환하게 웃으시던 그날의 군항, 찬바람부는 활주로서서 비행사들의 훈련을 마치까지 갔다 오시던 못 잊을 화폭, 감시소의 나이던 병사가 너무도 감동하고 대견하시어 그리고 정을 부여하시던 초소 이야기...

위대한 평정의 심장에서 뿜어지는 사랑의 불길과 더불어 한번에 수백 수천명의 군인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도 생겨나고 수십명의 병사들 한사람, 한사람을 곁에 세우고 사직을 찍어주시던 전일같은 이야기도 생겨났다.

그이는 정녕 조국앞에 병사로 나서서이고 한몸을 내려고 전우들을 찾아가시었다.

가라로운 칼벼랑길을 달려 오성산 정점에 오르시었던 6월의 그날 조국의 마지막차단물 열고 직진 35 0 0m의 까칠봉초소에 도착 하시었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가장 위대한 전우를 잃은 피눈물이었다.

상상할수 없는 고통을 말없이 겪으시며, 가야 할 앞길을 내다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 모두 팔을 끼고 어깨걸고 이 준엄한 시련을 이겨냈시다!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위대한 전우를 잃으신 크나큰 마음의 공백에 천만의 군민을 세워주시는 하느같은 믿음이였다.

전우의 그 믿음으로 새해의 첫날 근위광부대의 장병들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걸고 새로운 주제 100만대의 진군포성을 울리셨었다.

전우들과 굳게 뭉친 그 모습으로 세계에 거연히 나서시었고 그 말없는 심장의 헤엄으로 천만리로 이어갈 동지들의 장정을 선언하시었다.

피눈물의 바다에서 어깨걸고 일어난 전우들을 찾아가신 길이였다.

그 한차례, 한차례의 현시시찰은 사랑하는 전우들과 피와 정을 잇는 걸음걸음이었다.

사람들이여,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보자.

최고사령관과 전우. 초소에서 맺은 인연을 말할 때 우리 병사들의 심장은 과연 무엇으로 고동졌고 그들은 눈물로 젖어 웃으며 목메어 말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 많은 날과 달들, 많은 사연과 순간들이 무거우는데 정녕 날이 눈물을 자아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E. C》의 성원들처럼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걸고 기념사진을 찍은 장병들을 천으로 헤아리라, 만으로 헤아리라.

초도와 판문점, 오성산과 갈마루 중대, 장제도와 무도, 월내도, 하늘과 땅, 바다초소에서 이르기까지 우리 원수님께서 다나간 선군의 지명들이 기념사진들에 다 새겨져있다.

바람처럼 함선의 갑판에서 행영들 속에 둘러싸이시어 환하게 웃으시던 그날의 군항, 찬바람부는 활주로서서 비행사들의 훈련을 마치까지 갔다 오시던 못 잊을 화폭, 감시소의 나이던 병사가 너무도 감동하고 대견하시어 그리고 정을 부여하시던 초소 이야기...

위대한 평정의 심장에서 뿜어지는 사랑의 불길과 더불어 한번에 수백 수천명의 군인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도 생겨나고 수십명의 병사들 한사람, 한사람을 곁에 세우고 사직을 찍어주시던 전일같은 이야기도 생겨났다.

그이는 정녕 조국앞에 병사로 나서서이고 한몸을 내려고 전우들을 찾아가시었다.

가라로운 칼벼랑길을 달려 오성산 정점에 오르시었던 6월의 그날 조국의 마지막차단물 열고 직진 35 0 0m의 까칠봉초소에 도착 하시었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지막초소가 또 있다는것을 아시고 다시 걸음을 내었으셨었다.

한명의 군인이 있어도 무조건 가봅시다!

설사 지피밭이 가로놓였다 해도 병사들을 찾아가시는 그이의 발걸음은 누가 막을수 있었으리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날에 서시었던 곳에서 적들과의 거리는 불과 100m만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섬적하고 피가 돌아온다.

오성산의 병사들은 말한다. 100m가 아니라 10m, 아니 적의 총구앞에 우리 병사들이 서있다 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기어이 찾아 오셨을것이라고.

사랑이라면 심장을 통채로 주는 사랑, 믿음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서슴없이 맡기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분에게 어찌 심장의 문이 열리지 않을수 있고 이런분을 어찌 전우로 따르지 않을수 있으리.

위대한 전우의 슬결이 폐부로 뜨겁게 흘러든다.

전투입무수행중 장렬하게 희생된 용사들의 묘소에 자신의 존함을 새기도록 하신 그 불같은 손에 우리가 심금을 울리고 철혈병사들이 물고기를 통채로 먹는 사연을 두고두고 보시는 그 아버지의 정에 눈물이 젖어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있어서 또 하나의 자신이 있다면 전우이며 자신은 그저에 자기들 더가리라고 손이 어수시는 우리 원수님의 눈가에 운명의 태양으로 따르고 그이는 사랑하는 전우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간주하시었다.

자신께서는 전우복을 타고났다고 말할수시는 우리 원수님.

하나 이 땅의 천만민들은 이렇게 심장으로 웅대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과 전우의 불같은 정과 희생적인 헌신이 이 땅위에 전우의 대부대를 묶어세우고 바로 그로 하여 선군혁명은 백전백승을 떨치고있었다.

지켜본 3월의 광경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

섬이 통채로 환희의 파도가 된듯 물결쳐 달려오는 병사들과 그들을 뜨겁게 부둥켜안으시는 우리 원수님, 눈물범벅이 되어 어찌서 이런 위험한 곳에 또 오셨는가고 울먹이며 말씀드리는 군인들에게 동무들이 보고있어 다시 왔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따뜻한 손길로 항쟁의 돌쟁이를 축하해주시던 우리 원수님, 사랑하는 전사들모두를 품에 안고 찍으신 뜻 깊은 기념사진...

우리의 신성한 땅과 바다에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던 지해없이 섬적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조국통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올리라고 하신 그 떨적의 선언과 선우복을 통채로 먹는 사연을 두고두고 보시는 그 아버지의 정에 눈물이 젖어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있어서 또 하나의 자신이 있다면 전우이며 자신은 그저에 자기들 더가리라고 손이 어수시는 우리 원수님의 눈가에 운명의 태양으로 따르고 그이는 사랑하는 전우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간주하시었다.

자신께서는 전우복을 타고났다고 말할수시는 우리 원수님.

하나 이 땅의 천만민들은 이렇게 심장으로 웅대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과 전우의 불같은 정과 희생적인 헌신이 이 땅위에 전우의 대부대를 묶어세우고 바로 그로 하여 선군혁명은 백전백승을 떨치고있었다.

마라 얼음장같은 바다물에 뛰어드는 그 병사들의 심장의 무게와 불타는 정의 열도를 과연 리해나 할수 있었는가.

적들은 우리의 미사일과 노화력 포격을 두려워한 진짜포탄도 없었어 할것은 자기 최고사령관을 위해서 목숨을 내대는 전우부대의 총폭탄 위력이다.

원수들은 이제 이 힘과 맞서야 하며 그대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전우의 힘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이 무한대의 힘으로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가지에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하는 자기의 신념을 백배, 천배로 확신하고 있다.

거창한 사면들과 변혁들을 남기며 격동하며 흘러온 뜻깊은 이해, 과연 조선의 2013년을 력사속에 그리도 자랑스럽게 떠올린 힘은 무엇이 있었는가.

최고사령관과 전우들이었다.

우리의 일당백군들이었다.

그 힘은 천리방천에 뻗진 열적의 피성을 터치고 창조의 전장에 뻗진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셨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를 우러러 천만의 전우들이 위풍당당히 나아가는 그 장엄한 힘의 시위로 전승 60주년 성대히 경축하고 그 드세한 진군대오가 온 나라의 전구마디에 노드쳐 나아가 비약의 폭풍을 안아왔다.

산을 다스려 새겨진 열적의 스카이를 만들라던 정신이 변혁 들게 천지개벽의 동음을 울리고 세상에 보지 못한 희한한 물결이장도 단숨에 일 파세웠다. 웅근 하나의 화려한 새 거리고 단 몇달사이 일파세우는 장 들고 또 장한 우리 군대이다.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 팔광한 바다를 땀과 땅을 갈라놓 고 사면들도 떨고 갈라놓았다.

그러나 조선의 바다는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의 피를 흘린 더운 뜨겁게 이어주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이 불멸의 단결이 바로 우리의 핵이고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다.

이것이 바로 핵탄보다 더 무서운 힘이며 깊이 알수 없는 조선의 무한한 종심이다.

전우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전우가 아닌 맹목적인 군벌이나 명령으로만 뭉친 총대부대는 천만이 있어 몇명의 장수보다 강할수 없다. 평안무기로 정비하고 핵무기를 휘두른다 해도 전우의 부대가 아니면 한강 검정기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담이고 승리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담보이다.

장병들 모르는 세대의 과도는 지금도 감격의 이야기를 전한다.

미세어의 전면대결전으로 공기마저 떨어지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 대열전지역의 심방어대들을 또다시 찾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가 지켜보고 온 세계가

따라 얼음장같은 바다물에 뛰어드는 그 병사들의 심장의 무게와 불타는 정의 열도를 과연 리해나 할수 있었는가.

적들은 우리의 미사일과 노화력 포격을 두려워한 진짜포탄도 없었어 할것은 자기 최고사령관을 위해서 목숨을 내대는 전우부대의 총폭탄 위력이다.

원수들은 이제 이 힘과 맞서야 하며 그대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전우의 힘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이 무한대의 힘으로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가지에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하는 자기의 신념을 백배, 천배로 확신하고 있다.

거창한 사면들과 변혁들을 남기며 격동하며 흘러온 뜻깊은 이해, 과연 조선의 2013년을 력사속에 그리도 자랑스럽게 떠올린 힘은 무엇이 있었는가.

최고사령관과 전우들이었다.

우리의 일당백군들이었다.

그 힘은 천리방천에 뻗진 열적의 피성을 터치고 창조의 전장에 뻗진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셨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를 우러러 천만의 전우들이 위풍당당히 나아가는 그 장엄한 힘의 시위로 전승 60주년 성대히 경축하고 그 드세한 진군대오가 온 나라의 전구마디에 노드쳐 나아가 비약의 폭풍을 안아왔다.

산을 다스려 새겨진 열적의 스카이를 만들라던 정신이 변혁 들게 천지개벽의 동음을 울리고 세상에 보지 못한 희한한 물결이장도 단숨에 일 파세웠다. 웅근 하나의 화려한 새 거리고 단 몇달사이 일파세우는 장 들고 또 장한 우리 군대이다.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 팔광한 바다를 땀과 땅을 갈라놓 고 사면들도 떨고 갈라놓았다.

그러나 조선의 바다는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의 피를 흘린 더운 뜨겁게 이어주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이 불멸의 단결이 바로 우리의 핵이고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다.

이것이 바로 핵탄보다 더 무서운 힘이며 깊이 알수 없는 조선의 무한한 종심이다.

전우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전우가 아닌 맹목적인 군벌이나 명령으로만 뭉친 총대부대는 천만이 있어 몇명의 장수보다 강할수 없다. 평안무기로 정비하고 핵무기를 휘두른다 해도 전우의 부대가 아니면 한강 검정기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담이고 승리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담보이다.

장병들 모르는 세대의 과도는 지금도 감격의 이야기를 전한다.

미세어의 전면대결전으로 공기마저 떨어지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 대열전지역의 심방어대들을 또다시 찾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가 지켜보고 온 세계가

매어진 이런 군대의 힘의 분출은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몇명의 투사나 영웅들만이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전우가 되고 전진이 모는 병사들이 모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옹위해나서는 여기에 우리 전우의 특출한 놀이와 위력이 있다.

전우들만 있으면 두렵은 적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신조이다.

천만이 참된 전우가 되자!

전우의 힘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이 무한대의 힘으로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가지에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하는 자기의 신념을 백배, 천배로 확신하고 있다.

거창한 사면들과 변혁들을 남기며 격동하며 흘러온 뜻깊은 이해, 과연 조선의 2013년을 력사속에 그리도 자랑스럽게 떠올린 힘은 무엇이 있었는가.

최고사령관과 전우들이었다.

우리의 일당백군들이었다.

그 힘은 천리방천에 뻗진 열적의 피성을 터치고 창조의 전장에 뻗진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셨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를 우러러 천만의 전우들이 위풍당당히 나아가는 그 장엄한 힘의 시위로 전승 60주년 성대히 경축하고 그 드세한 진군대오가 온 나라의 전구마디에 노드쳐 나아가 비약의 폭풍을 안아왔다.

산을 다스려 새겨진 열적의 스카이를 만들라던 정신이 변혁 들게 천지개벽의 동음을 울리고 세상에 보지 못한 희한한 물결이장도 단숨에 일 파세웠다. 웅근 하나의 화려한 새 거리고 단 몇달사이 일파세우는 장 들고 또 장한 우리 군대이다.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 팔광한 바다를 땀과 땅을 갈라놓 고 사면들도 떨고 갈라놓았다.

그러나 조선의 바다는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의 피를 흘린 더운 뜨겁게 이어주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이 불멸의 단결이 바로 우리의 핵이고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다.

이것이 바로 핵탄보다 더 무서운 힘이며 깊이 알수 없는 조선의 무한한 종심이다.

전우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전우가 아닌 맹목적인 군벌이나 명령으로만 뭉친 총대부대는 천만이 있어 몇명의 장수보다 강할수 없다. 평안무기로 정비하고 핵무기를 휘두른다 해도 전우의 부대가 아니면 한강 검정기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담이고 승리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담보이다.

장병들 모르는 세대의 과도는 지금도 감격의 이야기를 전한다.

미세어의 전면대결전으로 공기마저 떨어지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 대열전지역의 심방어대들을 또다시 찾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가 지켜보고 온 세계가

1

총대는 강하다.

하나 그보다 더 강했는 그 총대에 흐르는 인민의 뜨거운 피와 정이다.

온 세계에 건설의 군대로 영광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은 최고사령관과 전우들을 잊을수 없다. 동지의 강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 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에게 정을 담아 하신 말씀이 귀처럼 울린다.

내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동무들과 함께 있을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이 김정은이 전우부자, 동지부자다. 이 동무들이나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승결을 같이하며 당의 의도대로 싸움준비를 잘하여 앞으로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몫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 더없이 미덥고 더없이 기쁘다. ...

전우부자, 동지부자!

천만의 전우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만났을 헤쳐오신 그이의 가장 큰 희원이 여기에 있고 피눈물의 바다에서 솟구쳐올라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창조한 그 2년의 고귀한 총화기 바로 여기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많은 동지, 전우들이 있기에 나는 백성이 든든하며 혁명승리에 대하여 확신하고있습니다.》

전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과 전우의 마음속에 불멸이처럼 간직된 부름이다.

그이께서 언제나 그렇고 그이의 마음속에 언제나 울리는 부름이다. 정녕 어느 한시도 전우를 잊은적이 없으시었다.

조국의 앞길에 엄혹한 시련이 가로놓일 때 제일 먼저 찾으신것이 전우였고 장차 가야 할 혁명의 먼길도 전우들과 더불어 내다보시었다.

1

총대는 강하다.

하나 그보다 더 강했는 그 총대에 흐르는 인민의 뜨거운 피와 정이다.

온 세계에 건설의 군대로 영광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은 최고사령관과 전우들을 잊을수 없다. 동지의 강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 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에게 정을 담아 하신 말씀이 귀처럼 울린다.

내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동무들과 함께 있을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이 김정은이 전우부자, 동지부자다. 이 동무들이나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승결을 같이하며 당의 의도대로 싸움준비를 잘하여 앞으로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몫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 더없이 미덥고 더없이 기쁘다. ...

전우부자, 동지부자!

천만의 전우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만났을 헤쳐오신 그이의 가장 큰 희원이 여기에 있고 피눈물의 바다에서 솟구쳐올라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창조한 그 2년의 고귀한 총화기 바로 여기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많은 동지, 전우들이 있기에 나는 백성이 든든하며 혁명승리에 대하여 확신하고있습니다.》

전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과 전우의 마음속에 불멸이처럼 간직된 부름이다.

그이께서 언제나 그렇고 그이의 마음속에 언제나 울리는 부름이다. 정녕 어느 한시도 전우를 잊은적이 없으시었다.

조국의 앞길에 엄혹한 시련이 가로놓일 때 제일 먼저 찾으신것이 전우였고 장차 가야 할 혁명의 먼길도 전우들과 더불어 내다보시었다.

2

승리란 무엇이고 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찌하여 자신의 운명을 드림없이 확신하는것이냐 조국의 존엄과 미래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을 놓게 되는가. 우리에게 승리와 힘에 대한 자기의 철학이 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바로 이것이 힘에 대한 가장 원벽한 대답이고 승리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담보이다.

장병들 모르는 세대의 과도는 지금도 감격의 이야기를 전한다.

미세어의 전면대결전으로 공기마저 떨어지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 대열전지역의 심방어대들을 또다시 찾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가 지켜보고 온 세계가

2

승리란 무엇이고 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찌하여 자신의 운명을 드림없이 확신하는것이냐 조국의 존엄과 미래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을 놓게 되는가. 우리에게 승리와 힘에 대한 자기의 철학이 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바로 이것이 힘에 대한 가장 원벽한 대답이고 승리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담보이다.

장병들 모르는 세대의 과도는 지금도 감격의 이야기를 전한다.

미세어의 전면대결전으로 공기마저 떨어지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 대열전지역의 심방어대들을 또다시 찾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가 지켜보고 온 세계가

2

승리란 무엇이고 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찌하여 자신의 운명을 드림없이 확신하는것이냐 조국의 존엄과 미래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을 놓게 되는가. 우리에게 승리와 힘에 대한 자기의 철학이 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바로 이것이 힘에 대한 가장 원벽한 대답이고 승리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담보이다.

장병들 모르는 세대의 과도는 지금도 감격의 이야기를 전한다.

미세어의 전면대결전으로 공기마저 떨어지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 대열전지역의 심방어대들을 또다시 찾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가 지켜보고 온 세계가

2

승리란 무엇이고 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찌하여 자신의 운명을 드림없이 확신하는것이냐 조국의 존엄과 미래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을 놓게 되는가. 우리에게 승리와 힘에 대한 자기의 철학이 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바로 이것이 힘에 대한 가장 원벽한 대답이고 승리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담보이다.

장병들 모르는 세대의 과도는 지금도 감격의 이야기를 전한다.

미세어의 전면대결전으로 공기마저 떨어지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 대열전지역의 심방어대들을 또다시 찾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가 지켜보고 온 세계가

2

승리란 무엇이고 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찌하여 자신의 운명을 드림없이 확신하는것이냐 조국의 존엄과 미래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을 놓게 되는가. 우리에게 승리와 힘에 대한 자기의 철학이 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바로 이것이 힘에 대한 가장 원벽한 대답이고 승리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담보이다.

장병들 모르는 세대의 과도는 지금도 감격의 이야기를 전한다.

미세어의 전면대결전으로 공기마저 떨어지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 대열전지역의 심방어대들을 또다시 찾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가 지켜보고 온 세계가

2

승리란 무엇이고 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찌하여 자신의 운명을 드림없이 확신하는것이냐 조국의 존엄과 미래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을 놓게 되는가. 우리에게 승리와 힘에 대한 자기의 철학이 있다.

최고사령관과 전우.

바로 이것이 힘에 대한 가장 원벽한 대답이고 승리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담보이다.

장병들 모르는 세대의 과도는 지금도 감격의 이야기를 전한다.

미세어의 전면대결전으로 공기마저 떨어지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 대열전지역의 심방어대들을 또다시 찾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가 지켜보고 온 세계가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다채로운 문화정서생활 향유

은 나라 군대와 인민의 축복 속에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평양에서 다채로운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하며 뜻깊은 나날을 보내고있다.

그들은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의 결집체로 솟아난 플라인민원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당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물고기잡이성과로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 이바지해온 그들에게 플라인민원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며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회의참가자들은 풍치수려한 플라에 인민의 문화휴식터가 훌륭히 일바라기 위해 해설을 들으며 플라공예관과 전자오락관, 락페 락동영화관을 돌아보았다.

플라공예관에서는 그들은 또한 한해 꾸러진 공예수조와 보조수조, 과학기술식보공급실, 편의봉사시설들을 참관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공예수조들을 보며 웃음을 피웠다.

사냥경기, 오토바이경기, 판스키경기 등 전자오락에서의 유쾌한 시간과 가상세계속에서 현실세계와 같은 흥미진진함을 느끼게 하는 락페공예관은 그들의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일바라기 마구잡이와 문수물놀이장의 여러 곳을 둘러보는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평양화관의 나날 회의참가자들은 평양공예공작과 4.25문화회관에서 종합공예공연과 조선인민군열성자회의 화솔소품공연도 관람하였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회의참가자들은 풍치수려한 플라에 인민의 문화휴식터가 훌륭히 일바라기 위해 해설을 들으며 플라공예관과 전자오락관, 락페 락동영화관을 돌아보았다.

플라공예관에서는 그들은 또한 한해 꾸러진 공예수조와 보조수조, 과학기술식보공급실, 편의봉사시설들을 참관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공예수조들을 보며 웃음을 피웠다.

사냥경기, 오토바이경기, 판스키경기 등 전자오락에서의 유쾌한 시간과 가상세계속에서 현실세계와 같은 흥미진진함을 느끼게 하는 락페공예관은 그들의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일바라기 마구잡이와 문수물놀이장의 여러 곳을 둘러보는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평양화관의 나날 회의참가자들은 평양공예공작과 4.25문화회관에서 종합공예공연과 조선인민군열성자회의 화솔소품공연도 관람하였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회의참가자들은 풍치수려한 플라에 인민의 문화휴식터가 훌륭히 일바라기 위해 해설을 들으며 플라공예관과 전자오락관, 락페 락동영화관을 돌아보았다.

플라공예관에서는 그들은 또한 한해 꾸러진 공예수조와 보조수조, 과학기술식보공급실, 편의봉사시설들을 참관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공예수조들을 보며 웃음을 피웠다.

사냥경기, 오토바이경기, 판스키경기 등 전자오락에서의 유쾌한 시간과 가상세계속에서 현실세계와 같은 흥미진진함을 느끼게 하는 락페공예관은 그들의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일바라기 마구잡이와 문수물놀이장의 여러 곳을 둘러보는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평양화관의 나날 회의참가자들은 평양공예공작과 4.25문화회관에서 종합공예공연과 조선인민군열성자회의 화솔소품공연도 관람하였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회의참가자들은 풍치수려한 플라에 인민의 문화휴식터가 훌륭히 일바라기 위해 해설을 들으며 플라공예관과 전자오락관, 락페 락동영화관을 돌아보았다.

플라공예관에서는 그들은 또한 한해 꾸러진 공예수조와 보조수조, 과학기술식보공급실, 편의봉사시설들을 참관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공예수조들을 보며 웃음을 피웠다.

사냥경기, 오토바이경기, 판스키경기 등 전자오락에서의 유쾌한 시간과 가상세계속에서 현실세계와 같은 흥미진진함을 느끼게 하는 락페공예관은 그들의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일바라기 마구잡이와 문수물놀이장의 여러 곳을 둘러보는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평양화관의 나날 회의참가자들은 평양공예공작과 4.25문화회관에서 종합공예공연과 조선인민군열성자회의 화솔소품공연도 관람하였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회의참가자들은 풍치수려한 플라에 인민의 문화휴식터가 훌륭히 일바라기 위해 해설을 들으며 플라공예관과 전자오락관, 락페 락동영화관을 돌아보았다.

플라공예관에서는 그들은 또한 한해 꾸러진 공예수조와 보조수조, 과학기술식보공급실, 편의봉사시설들을 참관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공예수조들을 보며 웃음을 피웠다.

사냥경기, 오토바이경기, 판스키경기 등 전자오락에서의 유쾌한 시간과 가상세계속에서 현실세계와 같은 흥미진진함을 느끼게 하는 락페공예관은 그들의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일바라기 마구잡이와 문수물놀이장의 여러 곳을 둘러보는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평양화관의 나날 회의참가자들은 평양공예공작과 4.25문화회관에서 종합공예공연과 조선인민군열성자회의 화솔소품공연도 관람하였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회의참가자들은 풍치수려한 플라에 인민의 문화휴식터가 훌륭히 일바라기 위해 해설을 들으며 플라공예관과 전자오락관, 락페 락동영화관을 돌아보았다.

플라공예관에서는 그들은 또한 한해 꾸러진 공예수조와 보조수조, 과학기술식보공급실, 편의봉사시설들을 참관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공예수조들을 보며 웃음을 피웠다.

사냥경기, 오토바이경기, 판스키경기 등 전자오락에서의 유쾌한 시간과 가상세계속에서 현실세계와 같은 흥미진진함을 느끼게 하는 락페공예관은 그들의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일바라기 마구잡이와 문수물놀이장의 여러 곳을 둘러보는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평양화관의 나날 회의참가자들은 평양공예공작과 4.25문화회관에서 종합공예공연과 조선인민군열성자회의 화솔소품공연도 관람하였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회의참가자들은 풍치수려한 플라에 인민의 문화휴식터가 훌륭히 일바라기 위해 해설을 들으며 플라공예관과 전자오락관, 락페 락동영화관을 돌아보았다.

플라공예관에서는 그들은 또한 한해 꾸러진 공예수조와 보조수조, 과학기술식보공급실, 편의봉사시설들을 참관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공예수조들을 보며 웃음을 피웠다.

사냥경기, 오토바이경기, 판스키경기 등 전자오락에서의 유쾌한 시간과 가상세계속에서 현실세계와 같은 흥미진진함을 느끼게 하는 락페공예관은 그들의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일바라기 마구잡이와 문수물놀이장의 여러 곳을 둘러보는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평양화관의 나날 회의참가자들은 평양공예공작과 4.25문화회관에서 종합공예공연과 조선인민군열성자회의 화솔소품공연도 관람하였다.

우리 조국에는 외로운 섬이 없다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항구구역 대두소학교 자매도분교 공훈교원 전복순동무

배는 서해의 물결을 헤가르며 배의 종적 달리고있었다.

배머리에 서서 바다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멀리 수평선에 눈길을 주다가는 한 처녀의 모습이 유묘하게 눈에 띄었다.

2시간 남짓이 버티고 달려서야 수평선 저 멀리로 2개의 거대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매도이다. 목지와 멀리 떨어져있는 섬.

(저 섬에서는 과연 어떤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있을까?)

그 처녀가 남산인민학교(당시)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소원대로 자매도분교의 교원으로 배치된 20살이 갓 지난 전복순동무였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78년 8월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소년단원들의 뒤에는 학생소년들의 가장 가까운 스승이며 정치적으로자신 소년단지도원선생님들과 분단지도원인 담임선생님들이 서있소이다.》

비록 몇세대가 살고있는 한적한 섬일지라도 전복순동무에게 있어서는 보람차고 행복찬 섬생활이었다.

학년이 서로 다른 몇명의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는 그들과 한데 어울려 탁구도 치고 바다물에 뛰어들어 수영도 하였다. 명망한 처녀교원의 가슴속에 어떤 꿈과 포부가 자리잡고있는지 그때까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전복순동무에게는 남모르는 소중한 꿈이 있었다.

“우리 다같이 유쾌하고 한결같은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자.”

우리의 다같이 유쾌하고 한결같은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자.”

배는 서해의 물결을 헤가르며 배의 종적 달리고있었다.

배머리에 서서 바다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멀리 수평선에 눈길을 주다가는 한 처녀의 모습이 유묘하게 눈에 띄었다.

2시간 남짓이 버티고 달려서야 수평선 저 멀리로 2개의 거대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매도이다. 목지와 멀리 떨어져있는 섬.

(저 섬에서는 과연 어떤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있을까?)

그 처녀가 남산인민학교(당시)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소원대로 자매도분교의 교원으로 배치된 20살이 갓 지난 전복순동무였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78년 8월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소년단원들의 뒤에는 학생소년들의 가장 가까운 스승이며 정치적으로자신 소년단지도원선생님들과 분단지도원인 담임선생님들이 서있소이다.》

비록 몇세대가 살고있는 한적한 섬일지라도 전복순동무에게 있어서는 보람차고 행복찬 섬생활이었다.

학년이 서로 다른 몇명의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는 그들과 한데 어울려 탁구도 치고 바다물에 뛰어들어 수영도 하였다. 명망한 처녀교원의 가슴속에 어떤 꿈과 포부가 자리잡고있는지 그때까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전복순동무에게는 남모르는 소중한 꿈이 있었다.

“우리 다같이 유쾌하고 한결같은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자.”

우리의 다같이 유쾌하고 한결같은 생활

농 촌 의 꿈 과 당 사 업

시대의 앞장에 선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꿈은 더욱더 아름답고 수고하다.

사리원시 3중3대혁명붉은기 미풍협동농장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본보기가 되신, 나의 정든 농장이 라고 불러주시신 영광의 땅에서 사는 남다른 긍지에서 피어난 소중한 꿈이 있다.

선진시대 애국농민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 과학농사의 덕을 마음껏 맛보며 도시부림지 않은

애국의 숲

에로부터 농사를 천하지대본 이라고 하면서도 천시된것이 바로 농사일었고 농민이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농민들에게는 애국으로 빛나는 존엄높은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길이 펼쳐져있다. 찾으시는 곳마다 일 잘하는 농장원들을 농촌혁명가, 애국농민으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건도 찍어주시며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

미국의 경우를 더욱 그러하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리원시 미풍협동농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 이 많이 깃들여있는 뜻깊은 농장이며 나의 정든 농장입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송고한 뜻 받들어 모든 농장원들을 영광의 땅을 빛내어나가는 농촌혁명가, 애국농민으로 더욱 억세게 키우자.

이것이 미풍리사람들의 가슴마다 뽐내고있는 열망에 맞게 그들의 땅의 참된 주인, 선진시대 애국농민으로 키우기 위하여 리당위원회가 틀어린 첫번째 고려였다.

이에 따라 리당위원회는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연구실을 통한 교양, 사적관람관을 통한 교양, 예술소풍공연과 포전방중교

농 촌 의 꿈 과 당 사 업

명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펼쳐리는 꿈, 이 애국의 꿈, 비약의 꿈, 생활의 꿈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꿈의 주인은 대중이며 그 실현도 대중이 한다. 여기서 결정적작용을 하는것이 당조직의 역할이다.

영광의 땅에서 사는 긍지와 영예가 높다고 하여 모두의 준비비중도가 같은것은 아니었다.

어느때인가 보내기전때였다. 그날 저녁 리당비서와 마주앉은 판리위원장은 안타까운 심정을 머금었다.

우리 농장원들처럼 성실하고 주인의사 사람들은 없다고 자부해왔는데...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 리당위원회가 찾은 교훈은 참으로 깊었다.

농장원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빛을 심어주자.

다음날부터 농장의 모든 일꾼들이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나갔다. 땅에 씨앗을 뿌린 건에 애국의 마음을 먼저 물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농촌혁명가라는것을 실천적방법으로 보여 주었다. 모츨 하나도 귀중히 여기는것이, 하나의 빈포기를 놓고도, 땅에 떨어진 한알의 단알을 보고도 제 살피고

사 리 원 시 미 곡 리 당 위 원 회 에 서

떨어졌처럼 가슴아파하는것이 바로 김정일애국주의라는 관점을 실천속에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리당위원회는 또한 애국의 싸움을 찾아내고 키워주고 일반화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그들의 하나가 화신식공정소 개선전판을 통한 교양이다. 혁신자들의 사신과 행정자료를 붙인 접이식전판을 가지고 전루장들을 돌며 농장원들속에 발표되는 애국의 싸움을 제때에 소개선전하였다. 토요일을 리용하여 학생들앞에서 선전하기도 하였는데 필요는 매우 높았다.

자식들앞에, 동생들앞에 자랑스럽고 멋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누구나 분발해나섰다. 한 번에 8명의 혁신자를 소개할수 있는 이 선전전의 위력은 대단 하였다. 8명을 통하여 80명, 800명, 아니 온 농장을 교양하는데 큰 작용을 한것이다.

사상교양사업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될수록 필요는 컸다. 날이 갈수록 미풍리사람들의 사상정신적면모가 새로워졌다. 《농장포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애국의 구호가 실현의 구호, 행동의 구호로 되어 온 농장에 애국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미풍별에는 땅의 진정한 주인과 대부대, 애국의 무성한 숲이 자라났다.

당일근로자들이 대중을 농장의 참된 주인, 열렬한 김정일애국주의자로 키우는 원예사가 될 때 농민들의 꿈을 실현할수 있는 사상정신적태도가 마련된다. 이것을 리당위원회는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리당위원회는 청년작업반에서 경험을 창조하고 온 농장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 짜고 들었다.

리당위원회는 또한 과학기술 거점을 잘 꾸리고 그중 통한 과학농사작업을 잘 펴며주었다.

두해전 판리위원장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종합분석실과 농업과학기술직선진자람실을 건설할것을 받기해나섰을 때 리당위원회는 이것을 적극 지지해주고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주었다.

중비실, 토양분석실, 작물분석실 등을 갖춘 1500㎡의 종합분석실이 훌륭히 건설되었다. 편이이 농업과학기술직선진자람실도 일떠섰다. 일꾼들과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믿음직한 주인들로 키울수 있는 거점들이 마련되었고 날이 갈수록 그 생활력이 파시되었다.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조 장 들 을 다

조장들을 다 참가시켜 강습을 주는 체계이다. 강습뒤에는 일기조건과 생육상태, 경영조건 등을 고려하여 5일간의 농작물 재배기술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주목되는것은 리당비서, 부비서를 비롯한 당일근로부러가 강습에 모범적으로 참가하여 선진기술로 무장한다는이다.

이렇게 제무장한 기술일꾼들이 농장원들에 대한 과학기술 학습을 신속있게 집행하도록 하였다.

리당위원회는 과학농사의 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청년작업반을 본보기로 내세웠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기술과학과 선진기술일에서 농장의 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리당위원회는 청년작업반에서 경험을 창조하고 온 농장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 짜고 들었다.

리당위원회는 또한 과학기술 거점을 잘 꾸리고 그중 통한 과학농사작업을 잘 펴며주었다.

두해전 판리위원장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종합분석실과 농업과학기술직선진자람실을 건설할것을 받기해나섰을 때 리당위원회는 이것을 적극 지지해주고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주었다.

중비실, 토양분석실, 작물분석실 등을 갖춘 1500㎡의 종합분석실이 훌륭히 건설되었다. 편이이 농업과학기술직선진자람실도 일떠섰다. 일꾼들과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믿음직한 주인들로 키울수 있는 거점들이 마련되었고 날이 갈수록 그 생활력이 파시되었다.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공기처럼 차츰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맞게 리당위원회는 모든 영농공정들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것은 물론이고 누구나 새기술의 장안자가 되도록 대중적 기술혁신의 불길들 세차게 지펴올렸다.

판리위원장이 배기가스를 처리하여 농작물의 민영양을 강화할 작상을 하였을 때였다. 리당위원회는 기어이 높은 농기계수리무에게 그 기술과편을 대담하게 맡겨주고 짧은 기간에 완성하도록 하였다. 하여 올해에 모내는기계수리를 100% 개조함으로써 새것없이 대기를 오염시키던 배기가스 농작물의 민영양을 높였다.

리당위원회는 과학농사의 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청년작업반을 본보기로 내세웠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기술과학과 선진기술일에서 농장의 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리당위원회는 청년작업반에서 경험을 창조하고 온 농장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 짜고 들었다.

리당위원회는 또한 과학기술 거점을 잘 꾸리고 그중 통한 과학농사작업을 잘 펴며주었다.

두해전 판리위원장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종합분석실과 농업과학기술직선진자람실을 건설할것을 받기해나섰을 때 리당위원회는 이것을 적극 지지해주고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주었다.

중비실, 토양분석실, 작물분석실 등을 갖춘 1500㎡의 종합분석실이 훌륭히 건설되었다. 편이이 농업과학기술직선진자람실도 일떠섰다. 일꾼들과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믿음직한 주인들로 키울수 있는 거점들이 마련되었고 날이 갈수록 그 생활력이 파시되었다.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파괴농사의 열풍이 온 농장에

양강화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모든 농장원들이 선진과학기술로 무장하고 적극 활용하게 됨으로써 농업생산의 과학화수준이 높을수 있게 되었다. 정보방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여 해마다 논벼농사에서 장운을 부르게 되었다. 2년전 판리위원장은 물론이고 리당비서, 작업반장급 일꾼들을 포함한 10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파괴농사열풍, 진민과학기술인재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송풍기가 된 리당위원회의 사업기풍이 인어온 비약의 열매였다.

문명의 창조

도시민주정도와 농촌민주정도, 이것은 세계적인 난문제이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농사일이 어렵고 힘든데도 있지만 도시는 농촌의 문화생활조건이 도리어 훨씬 락후했었다.

그때면 문명은 그 누가 가져다주는가. 아니다. 주민들의 손끝에 있다.

미풍리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였다.

우선 농장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데 선진적인 힘을 넣었다. 문명도 높은 중요한 척도의 하나인 교육수준이 높아졌다.

21년전 정경정무가 미풍리당비서로 배치되었을 때 문명의 기사, 중기사비들은 그닥 높지 못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송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였다. 문제는 일꾼들의 눈이 높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이 문제는 리당위원회적인 사

할수 없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화기기를 활짝 열어놓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보니 눈이 또 높아졌다.

—로라스케트장을 건설하자! 리당비서의 이 발기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농장에 로라스케트장까지 있어야 하는가고의 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농촌이 도시문명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앞도해야 한다는것이 리당비서의 결심이 고 배양되었다. 판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꾼들이 적극 지지해나섰고 농장원들이 떨쳐나섰다. 이렇게 되어 얼마후 로라스케트장이 훌륭히 건설되었을 때 사람들은 입을 딱 벌렸다고 한다.

리당위원회일꾼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업기풍, 완강한 일본새는 군중예술포 및 체육활동에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어냈다. 제 1차 태양절기념 전국예술포에서 추진단체상 행취, 농민동맹결성 80돐기념 전국농업근로자투경기대회에서 우수...

무대에 나서면 예술인, 경기장에 나서면 체육인이 되는것이 오늘날의 미풍리농민들이다.

이렇듯 당조직이 밀거름이 될 때 농장원들모두가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가 될수 있다.

*

리당위원회의 사업을 한마디로 평하면 사상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된 농촌의 참된 주인들을 키우는 원예사, 송풍기, 밀거름이 된것이다.

오늘 우리 농촌의 꿈은 날로 커지고있다. 그 꿈의 실현여부는 고대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과 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당조직들의 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이것이야말로 농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본사기자 김 향 란

나래를 더 활짝 펼쳐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 지 께 서 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물우에도 쫓이 핀다고 의로일꾼들이 정성을 다하면 이 세상에 고 지치 못할 병이 없습니디.》

얼마전이었다. 《선생님!》 하고 웨치며 한 학생이 량강도인민병원 과장 김선희동무의 품에 외락 안겨드는데가 있었다. 학교적인 달리기경기에서 1등을 하였다다는 학생의 이야기가 의사, 간호원들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

한해전까지만 해도 선천성질병으로 제때로 걸리지 못하던 험산시 장덕고급중학교 소학반 1학년 김진혁학생이 달리기경기에서 1등을 하였다던이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

지년대 9월 어느날이었다. 어머니의 뜰에 얽혀 병원에 들어선 경림이의 발을 보는 순간 의로일꾼들은 놀라지 않을수

인민병원의

힘에 부침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었다.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그러면 저도모르게 힘이 솟구쳤다.

경림이의 수술은 파의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의 관심사로 된속에서 드디어 첫 수술이 시작되었다. 성공이었다. 그해 5차례의 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며칠후부터는 경림이에게 걸기운동을 시켰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경림이가 찬 공이 하늘높이 떠오르는데 안인가.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며 의로일꾼들과 간호원들의 눈에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그대로 펼쳐보이는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

그때 일들을 돌이켜보며 김선희동무는 경림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다.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펴고 이 고마운 품을 만드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특파자 전 철 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 지 께 서 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육사업을 개선하자면 교원들의 책임성과 열정을 높이고 교육과정을 발전시키며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교육환경을 잘 꾸려놓고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배천군 2중영예의 붉은기 배천소학교를 찾았다.

교장 최병덕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원격교육실에 들어섰다.

송상카메라가 설치된 방에서는 교원이 강의를 하고있었다. 교장은 우리에게 《이 교원의 강의를 지금 다른 교실의 학생들을 TV화면으로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의의 출현하는 교원들은 모두 자질이 높고 모범교수자들로 자랑이요기하였다.

교장은 교실마다에 TV와 녹화기를 갖추어놓고 원격강의를 진행하니 학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것이 알만다고 하면서 우리를 자기 사무실로 안내하였다. 방에도 컴퓨터와 송상카메라, 마이크를 비롯한 설비들이 갖추어져있었다.

이 설비들은 원격강의를 진

이 설비들은 원격강의를 진

이 설비들은 원격강의를 진

이 설비들은 원격강의를 진

높은 실력을

배천군 배천소학교를

배천소학교를

배천소학교를

배천소학교를

배천소학교를

배천소학교를

배천소학교를

배천소학교를

배천소학교를

배천소학교를

부강조국을

부강조국을

부강조국을

부강조국을

부강조국을

부강조국을

부강조국을

부강조국을

부강조국을

부강조국을

부강조국을

부강조국을

부강조국을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소유한 앞날의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정 의 로

세차게 분출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수 없다

조국통일운동사의 한페이지를 새겨며 격동속에 흘러온 주제 102(2013)년이 저물어가고있다. 이 시각 우리 민족은 식을줄 모르는 애국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온 거리를 통일애국투쟁으로 부른 장엄한 포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조국통일 사상과 명도는 우리 겨레가 반통일 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운동을 활력있게 전진시키나갈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온 디딤돌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열망이요 유산입니다.》

새해의 첫날 아침 해내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접하여 우리 겨레 누구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그대로서인 또 한반도의 결성의 위인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모신 커다란 민족적 긍지로 하여 감격과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신년사의 줄거리를 따라 울려넘치는 뜨거운 동요와 철석의 통일지지, 민족단합의 웅대한 뜻은 그대로 온 겨레에게 새 힘을 북돋아주고 찬란한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슴뿌듯이 안겨주었다. 6.15의 기치높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도 그대로 올해 우리 민족이 들고나갈 투쟁의 지침, 승리의 표대였다.

신년사를 들먹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아 앞당길 불타는 열정을 안고 산악기슭이 떨쳐나섰다. 신년사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우는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려는 결연히 북남관계를 살리고 자주화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각각하고 조국통일투쟁에 한걸음도 물러가지 않도록 후송하였다. 해외동포들

이 살고있는 세계의 각에서도 신년사에 대한 연구토론회들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조국의 자주적행위를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이 한층 강화되었다.

올해 우리 공화국은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산을 지켜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공화국은 시종일관 민족의 단합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방에서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야량을 보이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대변인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7월 남북에 통지서를 보내어 개성공업지구 수취회담과 금강산관광개문제, 통일기차, 친척상봉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대화로 풀어나갈것을 제의하였으며 그 실현방도들을 내놓았다.

우여곡절끝에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북남당국수취회담이 조국지방 68선을 앞두고 급적으로 타결되고 중단상태에 놓였던 개성공업지구

에도 달한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

올해에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례없이 엄숙하였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의 악랄한 간섭책동과 그에 적극 추종한 남조선피괴당국의 사대매국행위, 동족대결책동의 후과였다.

지난해부터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외교정책을 견고히 반공화국제세우려는 열을 올리는 미국은 올해 들어와 보다 강도적인 수법에 역량을 쏟았다. 미호전당파들은 초대형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핵전력투입을

가 마침내 제가동의 동을 올릴수 있게 된것은 겨레의 고통을 한시비베 덜어주기 위한 우리의 통이 큰 결단에 의한것이였다. 북남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해내의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전례없이 높아졌다. 6.15공동선언이 실현된후의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연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은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강하게 주장해나섰으며 여기에 각 정당, 단체들도 함께해나섰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매당의 류례없는 파쇼관압속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반대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러한 속에 6.15공동선언 발표 13돐과 10.4선언발표 6돐을 비롯한 주요제기마다 사과와 함께의 공동행동에 뒤 소초문경의물들이 발표되고 해외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해외동포들은 올해를 6.15공동선언실천의 해로 정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올해 신년사에서 커다란 고무적임을 받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그 기치아래 몸부림치는 온 겨레의 투쟁에 의하여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인 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되고 조국통일위업은 힘차게 전진하였다.

올해에 조선반도정세가 극도로 악화되던것은 남조선외교당국이 외세의 침략적책동행의 돌격대로 나서서 북침정전도발을 위해 분발없이 남조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피괴보수매당이 《정권》간판을 내걸기 바쁘게 버려놓는것도 미제침략군의 항공모함타격전과 전락폭격기, 핵잠수함을 비롯하여 핵력수단들이 참가한 대규모적인 《리 리호브》, 《독수리》 핵공중사연습이다. 호전당파들이 지난 8월 《연백제》이라는 수일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사연습을 전례없이 요란하게 벌인 것은 대화분위를 과대시하고 핵전력의 불집을 한사코 터치기 위한 무모한 핵합동이다. 미국과 위헌적

《도》와 《해 및 란도미사일위협》을 꺼내들며 동공금지도발대비계획이나, 맞춤형예제전략이나 하는 극히 위험한 전쟁각본들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대대적인 무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에 발악적으로 매달렸다. 뿐만아니라 피괴들이 미국과 미사일방위체계에 가담할 기도를 드러내고 미, 일, 남조선 《3각사동맹》 강화책동에 적극 뛰어들면서 남조선에서 외세의 식민주의배제를 끝까지 사회를 민주화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력사의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반통일세력의 망동은 각계 의 규탄해적투쟁을 면치 못하였다.

특히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의 악랄한 대결책동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4월 남조선의 여러 사외단체들이 《전쟁종식 평화실현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전쟁종식 평화실현 수호행동》 선포식을 가진것을 비롯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대결투쟁은 남과 달을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전쟁》의 화근이며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라! 라는 구호를 힘차게 선포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수취와, 미국군정세력연습승조, 미, 일, 시키는 한편 진보민주세력발달을 도모한 《중복》소동을 발판으로 벌려왔다. 모악이 이같이 반공파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뿐아니라 해외의 조선민족이

는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훼손하려는 흉악무도한 음모까지 꾸미는 등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일삼았다. 이로 하여 북남관계는 개선되는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파국으로 치달았다.

현실은 피괴매당이 운운한 미국이, 대외니 하는것은 한갓 기만이며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오직 동족들끼리 북침전쟁밖에 없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었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불수에 짝 들어찬 이권자격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의 파국을 해소할수 없고 온 겨레가 손누에 대한 《연백제》 복원을 사슴같이 쫓고자 하는 우리로선 그정체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면서 나중에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강렬한 의지

자주, 민주, 통일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내일이기애 그들은 올해에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어느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외세의 식민주의배제를 끝까지 사회를 민주화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력사의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반통일세력의 망동은 각계 의 규탄해적투쟁을 면치 못하였다.

현실은 피괴매당이 운운한 미국이, 대외니 하는것은 한갓 기만이며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오직 동족들끼리 북침전쟁밖에 없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었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불수에 짝 들어찬 이권자격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의 파국을 해소할수 없고 온 겨레가 손누에 대한 《연백제》 복원을 사슴같이 쫓고자 하는 우리로선 그정체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면서 나중에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강렬한 의지

자주, 민주, 통일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내일이기애 그들은 올해에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어느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외세의 식민주의배제를 끝까지 사회를 민주화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력사의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반통일세력의 망동은 각계 의 규탄해적투쟁을 면치 못하였다.

특히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의 악랄한 대결책동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4월 남조선의 여러 사외단체들이 《전쟁종식 평화실현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전쟁종식 평화실현 수호행동》 선포식을 가진것을 비롯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대결투쟁은 남과 달을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전쟁》의 화근이며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라! 라는 구호를 힘차게 선포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수취와, 미국군정세력연습승조, 미, 일, 시키는 한편 진보민주세력발달을 도모한 《중복》소동을 발판으로 벌려왔다. 모악이 이같이 반공파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뿐아니라 해외의 조선민족이

원들의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편견시키면서 이 땅을 해산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또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주민주》 등에 《북에 동조》하였다든 리무니없는 죄명을 들뜨우며 무차별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저들과 견해와 림장이 다른 모든 진보민주세력을 모조리 《중복》으로 몰아 탄압말살하고 《정권》위기를 수습하며 장기집권의 계몽을 실현해보려는 피괴보수매당의 책동은 실로 악랄하게 고지였다. 그러나 그들의 광란적인 《중복》소동은 제논으로 제논을 저르는 격이 되고말았다.

본노한 남조선의 로동자들과 대학 교수들, 종교인들, 변호사들 그리고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매일같이 비상사회의와 출범집회, 기자회견, 민주화를 위한 공동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반 《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시국선언과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현 집권자의 《대통령》 당선후, 《정권》 퇴진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온 남조선사람이 보수당국의 반역 투쟁을 규탄단죄하는 성토장으로 화하였다. 최악의 위기에 몰린 피괴매당이 최악령명을 대대적으로 내몰아 반 《정부》 투쟁에 대한 야수적탄압에 열을 올렸지만 남조선 각계의 투쟁기운은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남조선인민들은 올해의 통일행진을 투쟁으로 개시한 조국통일의 반 《정부》 투쟁은 보수 《정권》을 밀부러져 흔들려놓았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적극적 지원과 지와 편인, 군권을 총동원한 부정행위 감시기로 집권한 남조선보수매당은 한해동안 《유신》제재부활과 단 없이 계속되었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전쟁》의 화근이며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라! 라는 구호를 힘차게 선포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수취와, 미국군정세력연습승조, 미, 일, 시키는 한편 진보민주세력발달을 도모한 《중복》소동을 발판으로 벌려왔다. 모악이 이같이 반공파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뿐아니라 해외의 조선민족이

위험천만한 새 세계대전각본

미국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군사적목적을 보이고있다.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에 광범화하면서 추진하고있는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이다.

잠수함, 군함, 전투폭격기 등에서 정밀화된 상용무기를 발사하여 1시간만에 지구상 그 어느 지역이라도 타격을 가한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현재 비행단에서 프로그램된경과 동시목표타격이 가능한 타격밀도가 매우 높은 새로운 순항미사일에 의한 타격이 이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이로써 군사적목적에 의한 세계제제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음험한 기도도 또다시 드러났다.

수십년간 미국이 점오하게 추진하고있는 전지구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은 말의 《방위》이 지 실재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어느 한 개별 적나라만을 노린것은 초기에는 너무나 야심적이었다. 미국은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을 상용무기에 의한 공격으로 판공하여만 발전된 순항미사일들이 무엇이 탑재되어있는지는 공개자들만이 알 일이다. 거기에 핵탄두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집권정국 《비핵세계》 수상을 요란하게 광고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핵병기》의 감투를 씌우려고 《핵시절》을 파괴해야 한다는 명분밑에 침담무기로 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의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그것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것으로서 명백히 무모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허덕이면서도 최신 전쟁장비개발 및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는 목적은 뻔하다. 파국적인 경제위기의 출구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는것이 미국의 기도이다. 《비핵세계》의 간판밑에 강행되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열핵전쟁위협성은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다.

세계평화와 안정과파의 주범,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장본인인 미국이 부분별한 군사적망동에 매달리는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미호전세력이 새로운 세계대전을 꿈꾸면서 저들은 무사하리라고 타산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모험적인 군사적투쟁을 부리는 전쟁미끼자들은 국제적인 규탄배격을 면치 못하였다.

단 평 말 기 증 상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미국에 운명의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재정절벽에 부딪쳐 강압적인 세금인상과 850억USS의 예산지출감소를 감수하지 않으면 인디계 원 기막힌 처지, 국가채무한계를 돌파한 17조USS에 달하는 국가채무, 중국과 인민, 공화당양이 개시한 피더지는 싸움, 돈줄이 잘려 위 정부가 부분폐쇄를 선언하기 바쁘게 일어난 공무원해고비마 등은 죽음에 가까와가는 한자의 말기증상이다. 그 여파는 찾아들지 못하고 이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에도 계속되고있으니 경제위기전멸에 걸려 옆집에 누운 동맹국한자들의 짜증에 귀가 먹을 정도이다.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군사적목적을 보이고있다.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에 광범화하면서 추진하고있는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이다.

잠수함, 군함, 전투폭격기 등에서 정밀화된 상용무기를 발사하여 1시간만에 지구상 그 어느 지역이라도 타격을 가한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현재 비행단에서 프로그램된경과 동시목표타격이 가능한 타격밀도가 매우 높은 새로운 순항미사일에 의한 타격이 이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이로써 군사적목적에 의한 세계제제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음험한 기도도 또다시 드러났다.

수십년간 미국이 점오하게 추진하고있는 전지구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은 말의 《방위》이 지 실재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어느 한 개별 적나라만을 노린것은 초기에는 너무나 야심적이었다. 미국은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을 상용무기에 의한 공격으로 판공하여만 발전된 순항미사일들이 무엇이 탑재되어있는지는 공개자들만이 알 일이다. 거기에 핵탄두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집권정국 《비핵세계》 수상을 요란하게 광고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핵병기》의 감투를 씌우려고 《핵시절》을 파괴해야 한다는 명분밑에 침담무기로 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의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그것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것으로서 명백히 무모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허덕이면서도 최신 전쟁장비개발 및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는 목적은 뻔하다. 파국적인 경제위기의 출구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는것이 미국의 기도이다. 《비핵세계》의 간판밑에 강행되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열핵전쟁위협성은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다.

단 평 말 기 증 상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미국에 운명의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재정절벽에 부딪쳐 강압적인 세금인상과 850억USS의 예산지출감소를 감수하지 않으면 인디계 원 기막힌 처지, 국가채무한계를 돌파한 17조USS에 달하는 국가채무, 중국과 인민, 공화당양이 개시한 피더지는 싸움, 돈줄이 잘려 위 정부가 부분폐쇄를 선언하기 바쁘게 일어난 공무원해고비마 등은 죽음에 가까와가는 한자의 말기증상이다. 그 여파는 찾아들지 못하고 이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에도 계속되고있으니 경제위기전멸에 걸려 옆집에 누운 동맹국한자들의 짜증에 귀가 먹을 정도이다.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군사적목적을 보이고있다.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에 광범화하면서 추진하고있는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이다.

잠수함, 군함, 전투폭격기 등에서 정밀화된 상용무기를 발사하여 1시간만에 지구상 그 어느 지역이라도 타격을 가한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현재 비행단에서 프로그램된경과 동시목표타격이 가능한 타격밀도가 매우 높은 새로운 순항미사일에 의한 타격이 이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이로써 군사적목적에 의한 세계제제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음험한 기도도 또다시 드러났다.

수십년간 미국이 점오하게 추진하고있는 전지구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은 말의 《방위》이 지 실재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어느 한 개별 적나라만을 노린것은 초기에는 너무나 야심적이었다. 미국은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을 상용무기에 의한 공격으로 판공하여만 발전된 순항미사일들이 무엇이 탑재되어있는지는 공개자들만이 알 일이다. 거기에 핵탄두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집권정국 《비핵세계》 수상을 요란하게 광고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핵병기》의 감투를 씌우려고 《핵시절》을 파괴해야 한다는 명분밑에 침담무기로 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의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그것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것으로서 명백히 무모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허덕이면서도 최신 전쟁장비개발 및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는 목적은 뻔하다. 파국적인 경제위기의 출구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는것이 미국의 기도이다. 《비핵세계》의 간판밑에 강행되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열핵전쟁위협성은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다.

단 평 말 기 증 상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미국에 운명의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재정절벽에 부딪쳐 강압적인 세금인상과 850억USS의 예산지출감소를 감수하지 않으면 인디계 원 기막힌 처지, 국가채무한계를 돌파한 17조USS에 달하는 국가채무, 중국과 인민, 공화당양이 개시한 피더지는 싸움, 돈줄이 잘려 위 정부가 부분폐쇄를 선언하기 바쁘게 일어난 공무원해고비마 등은 죽음에 가까와가는 한자의 말기증상이다. 그 여파는 찾아들지 못하고 이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에도 계속되고있으니 경제위기전멸에 걸려 옆집에 누운 동맹국한자들의 짜증에 귀가 먹을 정도이다.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군사적목적을 보이고있다.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에 광범화하면서 추진하고있는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이다.

잠수함, 군함, 전투폭격기 등에서 정밀화된 상용무기를 발사하여 1시간만에 지구상 그 어느 지역이라도 타격을 가한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현재 비행단에서 프로그램된경과 동시목표타격이 가능한 타격밀도가 매우 높은 새로운 순항미사일에 의한 타격이 이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이로써 군사적목적에 의한 세계제제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음험한 기도도 또다시 드러났다.

수십년간 미국이 점오하게 추진하고있는 전지구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은 말의 《방위》이 지 실재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어느 한 개별 적나라만을 노린것은 초기에는 너무나 야심적이었다. 미국은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을 상용무기에 의한 공격으로 판공하여만 발전된 순항미사일들이 무엇이 탑재되어있는지는 공개자들만이 알 일이다. 거기에 핵탄두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집권정국 《비핵세계》 수상을 요란하게 광고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핵병기》의 감투를 씌우려고 《핵시절》을 파괴해야 한다는 명분밑에 침담무기로 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의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그것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것으로서 명백히 무모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허덕이면서도 최신 전쟁장비개발 및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는 목적은 뻔하다. 파국적인 경제위기의 출구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는것이 미국의 기도이다. 《비핵세계》의 간판밑에 강행되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열핵전쟁위협성은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다.

단 평 말 기 증 상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미국에 운명의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재정절벽에 부딪쳐 강압적인 세금인상과 850억USS의 예산지출감소를 감수하지 않으면 인디계 원 기막힌 처지, 국가채무한계를 돌파한 17조USS에 달하는 국가채무, 중국과 인민, 공화당양이 개시한 피더지는 싸움, 돈줄이 잘려 위 정부가 부분폐쇄를 선언하기 바쁘게 일어난 공무원해고비마 등은 죽음에 가까와가는 한자의 말기증상이다. 그 여파는 찾아들지 못하고 이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에도 계속되고있으니 경제위기전멸에 걸려 옆집에 누운 동맹국한자들의 짜증에 귀가 먹을 정도이다.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군사적목적을 보이고있다.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에 광범화하면서 추진하고있는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이다.

잠수함, 군함, 전투폭격기 등에서 정밀화된 상용무기를 발사하여 1시간만에 지구상 그 어느 지역이라도 타격을 가한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현재 비행단에서 프로그램된경과 동시목표타격이 가능한 타격밀도가 매우 높은 새로운 순항미사일에 의한 타격이 이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이로써 군사적목적에 의한 세계제제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음험한 기도도 또다시 드러났다.

수십년간 미국이 점오하게 추진하고있는 전지구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은 말의 《방위》이 지 실재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어느 한 개별 적나라만을 노린것은 초기에는 너무나 야심적이었다. 미국은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을 상용무기에 의한 공격으로 판공하여만 발전된 순항미사일들이 무엇이 탑재되어있는지는 공개자들만이 알 일이다. 거기에 핵탄두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집권정국 《비핵세계》 수상을 요란하게 광고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핵병기》의 감투를 씌우려고 《핵시절》을 파괴해야 한다는 명분밑에 침담무기로 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의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그것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것으로서 명백히 무모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허덕이면서도 최신 전쟁장비개발 및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는 목적은 뻔하다. 파국적인 경제위기의 출구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는것이 미국의 기도이다. 《비핵세계》의 간판밑에 강행되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열핵전쟁위협성은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다.

단 평 말 기 증 상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미국에 운명의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재정절벽에 부딪쳐 강압적인 세금인상과 850억USS의 예산지출감소를 감수하지 않으면 인디계 원 기막힌 처지, 국가채무한계를 돌파한 17조USS에 달하는 국가채무, 중국과 인민, 공화당양이 개시한 피더지는 싸움, 돈줄이 잘려 위 정부가 부분폐쇄를 선언하기 바쁘게 일어난 공무원해고비마 등은 죽음에 가까와가는 한자의 말기증상이다. 그 여파는 찾아들지 못하고 이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에도 계속되고있으니 경제위기전멸에 걸려 옆집에 누운 동맹국한자들의 짜증에 귀가 먹을 정도이다.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군사적목적을 보이고있다.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에 광범화하면서 추진하고있는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이다.

잠수함, 군함, 전투폭격기 등에서 정밀화된 상용무기를 발사하여 1시간만에 지구상 그 어느 지역이라도 타격을 가한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현재 비행단에서 프로그램된경과 동시목표타격이 가능한 타격밀도가 매우 높은 새로운 순항미사일에 의한 타격이 이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이로써 군사적목적에 의한 세계제제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음험한 기도도 또다시 드러났다.

수십년간 미국이 점오하게 추진하고있는 전지구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은 말의 《방위》이 지 실재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어느 한 개별 적나라만을 노린것은 초기에는 너무나 야심적이었다. 미국은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을 상용무기에 의한 공격으로 판공하여만 발전된 순항미사일들이 무엇이 탑재되어있는지는 공개자들만이 알 일이다. 거기에 핵탄두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집권정국 《비핵세계》 수상을 요란하게 광고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핵병기》의 감투를 씌우려고 《핵시절》을 파괴해야 한다는 명분밑에 침담무기로 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의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그것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것으로서 명백히 무모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허덕이면서도 최신 전쟁장비개발 및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는 목적은 뻔하다. 파국적인 경제위기의 출구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는것이 미국의 기도이다. 《비핵세계》의 간판밑에 강행되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열핵전쟁위협성은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다.

단 평 말 기 증 상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미국에 운명의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재정절벽에 부딪쳐 강압적인 세금인상과 850억USS의 예산지출감소를 감수하지 않으면 인디계 원 기막힌 처지, 국가채무한계를 돌파한 17조USS에 달하는 국가채무, 중국과 인민, 공화당양이 개시한 피더지는 싸움, 돈줄이 잘려 위 정부가 부분폐쇄를 선언하기 바쁘게 일어난 공무원해고비마 등은 죽음에 가까와가는 한자의 말기증상이다. 그 여파는 찾아들지 못하고 이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에도 계속되고있으니 경제위기전멸에 걸려 옆집에 누운 동맹국한자들의 짜증에 귀가 먹을 정도이다.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군사적목적을 보이고있다.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에 광범화하면서 추진하고있는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이다.

잠수함, 군함, 전투폭격기 등에서 정밀화된 상용무기를 발사하여 1시간만에 지구상 그 어느 지역이라도 타격을 가한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현재 비행단에서 프로그램된경과 동시목표타격이 가능한 타격밀도가 매우 높은 새로운 순항미사일에 의한 타격이 이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이로써 군사적목적에 의한 세계제제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음험한 기도도 또다시 드러났다.

수십년간 미국이 점오하게 추진하고있는 전지구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은 말의 《방위》이 지 실재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어느 한 개별 적나라만을 노린것은 초기에는 너무나 야심적이었다. 미국은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을 상용무기에 의한 공격으로 판공하여만 발전된 순항미사일들이 무엇이 탑재되어있는지는 공개자들만이 알 일이다. 거기에 핵탄두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집권정국 《비핵세계》 수상을 요란하게 광고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핵병기》의 감투를 씌우려고 《핵시절》을 파괴해야 한다는 명분밑에 침담무기로 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의 전지구신속타격계획은 그것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것으로서 명백히 무모한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허덕이면서도 최신 전쟁장비개발 및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는 목적은 뻔하다. 파국적인 경제위기의 출구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는것이 미국의 기도이다. 《비핵세계》의 간판밑에 강행되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열핵전쟁위협성은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다.

단 평 말 기 증 상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미국에 운명의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재정절벽에 부딪쳐 강압적인 세금인상과 850억USS의 예산지출감소를 감수하지 않으면 인디계 원 기막힌 처지, 국가채무한계를 돌파한 17조USS에 달하는 국가채무, 중국과 인민, 공화당양이 개시한 피더지는 싸움, 돈줄이 잘려 위 정부가 부분폐쇄를 선언하기 바쁘게 일어난 공무원해고비마 등은 죽음에 가까와가는 한자의 말기증상이다. 그 여파는 찾아들지 못하고 이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에도 계속되고있으니 경제위기전멸에 걸려 옆집에 누운 동맹국한자들의 짜증에 귀가 먹을 정도이다.

7-3103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출판등록번호 제3호) 전 화 : 교현 373-2312, 편집국 373-1328, 통일원실 373-5428, 당직서약부 373-5528, 당직서약부 370-4528, 사회외교양부 372-3528, 7-3103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출판등록번호 제3호) 편 집 위 원 회